

파라과이와 손잡은 KMI K-헬스케어 해외 확산 ‘교두보’ 마련

(쿠키뉴스) 이찬중 기자 hustlelee@kukinew.com
2025.10.24 12:03



KMI는 지난 10월 15일 Codas Thompson 병원에서 열린 교류회에서 현지 의료인을 대상으로 ‘임상 근거의 스마트 결과 리포트 시스템 교육’을 진행했다. KMI한국의학연구소 제공

KMI한국의학연구소가 파라과이 최대 영상의학 전문병원인 Codas Thompson 병원과 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KMI는 지난 10월 15일 Codas Thompson 병원에서 열린 교류회에서 현지 의료인을 대상으로 ‘임상 근거의 스마트 결과 리포트 시스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안지현 KMI 수석상임연구위원은 △한국형 차세대결과지 시스템 내 판정 예문 템플릿 활용 전략 및 사례 △템플릿 커스터마이징을 통한 협력 방향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학술교류회는 KMI가 파라과이에 ‘한국형 건강검진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일환으로 추진됐다. KMI는 이를 통해 파라과이 보건 의료 인프라 개선과 K-헬스케어 브랜드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KMI는 지난해 8월 파라과이 정부 관계자 및 주요 병원, 기업 대표단을 초청해 KMI 광화문검진센터의 운영 시스템과 첨단 장비, 의료데이터 관리 체계를 소개한 바 있다.

이광배 KMI 이사장은 “파라과이는 남미 시장 진출의 관문이자 K-헬스케어 모델이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한국형 건강검진시스템이 현지 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향후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인접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